

공직자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고성군은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종국 고성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틀린 고성’을 만들기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알선과 정탁을 근절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내 돈처럼 아껴 쓰겠다는 결의와 함께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결의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 풍수해보험 홍보활동

고성군은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권유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군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 이장회의 때 풍수해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읍면 민원실에 가입 전담 창구를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산림바이오매스 체력검정 실시



지난달 접수를 마감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신청자들이 지난 7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체력검정 시험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최종 선발된 사람은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루 4만5천원의 임금과 수당을 받고 일하게 된다. 최광호 기자

공고

제1차 정기 주주총회 안내

주식회사 고성신문의 제1차 정기주주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2월 20일, 오후 2시
- 장 소 : 본사 사무실(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 참석범위 : 주식회사 고성신문 주주

- 제1안건 : 2011년도 결산보고
- 제2안건 :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주식회사 고성신문
☎681-1666~7

재정불건전 운용 이유 교부세 감액

행안부, 고성군 등 92개 지자체 ... 35개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

정부가 지방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92개 지자체의 2012년도 교부세를 감액해 35개의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6일 재정 운용 불건전 지자체로 선정된 고성군 등 전국 92개 지자체로부터 81억 4천500만원의 교부세를 삭감하고, 대신 우수 지자체 35곳에 52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교부세 감액 대상 지자체는 2010년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결정했고, 우수 지자체는 2011년 예산 운용 실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지자체 가운데 전국 1위는 경기 성남시로 7억 1천91만6천원이 감액됐다. 고성군은 1

억8천663만8천원이 감액돼 전국 13위, 강원도 1위를 기록했다.

강원도 감액 지자체 순위는 △고성군 1억8천663만8천원 △평창군 1억5천331만4천원 △횡성군 6천798만5천원 △영월군 6천786만2천원 △인제군 3천300만원 △양양군 2천799만8천원 △삼척시 2천257만6천원 △도청 1천20만1천원 △태백시 241만1천원 등이다.

최광호 기자

“고성발전의 이정표가 되어주길”

본지 창간 1주년 기념 간담회 ... 칼럼위원·시민기자 참석

행복한 고성 만들기, 행정과 주민의 가교,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 등 3대 창간이념으로 출범한 고성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지난 7일 가진리 소재 한 정식전문점 남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임직원을 비롯해 칼럼위원, 시민기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행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주년 평가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윤승근 발행인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함께 해 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성신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남숙희 칼럼위원은 “고성신문이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담을 나누는 식의 행태에서 벗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수 칼럼위원은 “고성신문이 완연

하게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년을 즈음하여 꽃이 만개할 것이라는 희망을 엿보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고성신문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섭 칼럼위원은 “비난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모두가 성숙된 의식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공순 시민기자는 “처음에는 신문 보도 내용이 공정치 못하다는 일부 비판 의견도 있었으나 날을 거듭할 수록 신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면이 보였다”며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설사 일각에서 본질을 흐리는



고성신문 창간1주년 기념 간담회 모습.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개의치 말고 깨끗하게 일어서는 고성발전의 이정표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김일용 시민기자는 “고성신문은 주민들을 위한 신문이지 행정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을 가까이서 조명해 줄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고성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고성군선관위(위원장 유성욱)는 지난 6일 고성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중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85조), 공무원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

조)등 공무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고성군선관위는 향후에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상대로 수요자 맞춤형 공직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



고성군선관위는 지난 6일 고성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강연을 실시했다.

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